



■ '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예고보도(2016.04.19.)

4. 20(수) 오후 3시,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.

- ▲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대입시에서 '학생부의 배신'과 관련된 기사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. 수시 학생부 전형이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등에 유리해 대입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오히려 '교육 양극화'를 심화시킨다는 비판 대두.
- ▲ 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하 사교육걱정)은 1차 토론회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.
- ▲ 2차 토론회는 4월 20일(수) 오후 3시,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"학생부종합전형의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"라는 주제로 수시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.
- ▲ 이와 관련해 연구기관 박사, 입학사정관, 현장 교사, 교육평론가, 정당 최고위원 등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입전형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임.

사교육걱정에서는 '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 및 대안을 모색'을 위한 두 차례의 토론회 중 2차 토론회를 4월 20일(수) 오후 3시에 개최합니다.

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언론이 제기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서울대 상황을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였습니다.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도 확

실했습니다. 먼저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면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전형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 요소를 두고 있는 대학들의 운영 상황의 개선이 시급했습니다. 또한 부모, 교사, 학교 등의 외부환경의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비교과 중심의 평가 항목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.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모집비율의 적정선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확인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

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분장 정책2국장이 발제하고, 토론으로는 △김경숙 건국대 입학전형 전문교수, △김승현 송실고 교사, △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(20대 국회의원 당선인), △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, △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, △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실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.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학입시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■ 행사명 :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

■ 일 시 : 4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

■ 장 소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

(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)

기간	주제 및 세부 내용	■ 발표 □ 토론
1차 4.7(목) 오후 6시 30분	'학생부의 배신' 진실인가, 오해인가?	■ 구분장(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)
		□ 김덕년(경기도교육청 장학사)
		□ 이기정(미양고 교사)
		□ 이미경(서울여대 학생선발팀 전담교수)
		□ 이병민(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)
2차 4.20(수) 오후 3시	학생부종합전형의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.	■ 구분장(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)
		□ 김경숙(건국대 입학전형 전문교수)
		□ 김승현(송실고 교사,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)
		□ 박주현(국민의당 최고위원, 20대 국회의원 당선인)
		□ 이 범(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)
□ 임종화(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)		
□ 정광희(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실장)		

2016. 04. 19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분장(02-797-4044/내선번호 501)